

# 벌써 부실국감 우려... 여야 증인 채택 곳곳 충돌

### 한노위·정무위, 대기업 총수 놓고 파행 거듭

### 새정치, 준비 부실로 화끈한 '한방' 없어 고심

초반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부실 국감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정국 파행으로 국정감사가 별다른 준비 없이 뒤늦게 실시된 데다 여야의 정쟁과 실전 속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이틀 동안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부위원회는 각각 대기업과 금융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다가 회의가 종일 또는 부분 파행을 거듭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은 9일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 문제 등으로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파행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야당의 자제를 촉구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란 말 그대로 국정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과 관련없는 대기업 집단의 총수를 국감장에 증인으로 세워 망신을 주는 것은 국감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국감 준비기간이 짧았던 탓에 증인채택 등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얘기할 시간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야당이 '일단 다 부르고 보자'는 식으로 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기업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가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와 새누리당의 증인 채택 태클로 초반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정에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해 국감에서도 정부 관계자와 공무원들의 자료 누락 제출 등 비협조가 여전하다"며 "정부 실정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

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기업인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정부의 든든한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과연 어떻게 비칠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총수 증인대 세워야”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이 9일 여의도 국회 정문관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명계 원내대변인도 "기업인 증인이 나오면 정책 공방을 할 일이지 굳이 채택 여부를 쟁점 삼아 소란스럽게 하는 것은 정쟁 국감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내심 조조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실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국감 무대가 펼쳐졌음에도 화끈한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의 4대 기조를 세월호 진상규명과

증세 문제, 정부의 인사참사,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로 정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파행 장기화로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국감이 진행되면서 여당보다 야당이 답답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새정치연합 내부의 계파 갈등 등 내홍이 이어지면서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국감 한창인데... 대통령·與대표 해외로

### 다음주 동시 이탈리아·중국 출장길 올라

국정감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공교롭게도 다음주 동시 해외 출장길에 올라 주목을 끌고 있다.



박대통령



김무성 대표

김 대표는 대통령 출국에 하루 앞선 13일 중국을 방문한다. 대표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으로, 중국 공산당 초청을 받아 한중정당정책회의 참석차 방중한다. 김 대표

박 대통령은 다자정상외교를 위해, 김 대표는 정당외교 차원에서 각각 이탈리아와 중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가 동시에 국내를 비우고 국외 방문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박 대통령은 오는 14~17일 이탈리아를 방문해 제10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프란치스코 교황 예방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박 대통령의 아셈회의 참석은 지난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로 시작된 하반기 다자회의체 정상외교 일정의 연장선으로, 대유럽 및 대아시아 외교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어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문화 및 과학기술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방안, 무역·투자 증진방안, 에너지 분야 협력 등을 협의한다. 또 바티칸 교황청도 함께 찾아 지난 8월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두달 만에 다시 만날 예정이다.

는 국감 기간임을 감안, 방문 기간을 나흘로 잡아지만 행사 성격을 고려해 국회의원 등 공식대표단만 12명인 매머드급 방중단을 꾸렸다.

아울러 다음주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해외방문 기간에 한중일 외교관계의 현주소를 재차 확인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도 관심거리다.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번 아셈회의에 함께 참석하지만 두 정상 간 만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을 거듭 요청하고 있으나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이 국가적으로 성노예를 삼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한일관계에 장애물만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김 대표는 이번 방중 길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을 추진 중이고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는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박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 새정치 조강특위 위원 선정 싸고 또 계파갈등 도지나

### 오늘 당무위 소집 의결 주목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저녁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 조강특위(조강화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고 10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이를 의결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강특위가 전국 246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거나 임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특위 위원 선임 결과에 따라 각 계파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시·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조강특위 위원을 구성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채택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시·도당위원장 모두를 조강특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는데다 안전수전 대표 측 인사들을 포함하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계파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특히, 조강특위 위원 선정을 놓고 친노와 비노의 계파 갈등이 다시 폭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파 간에 적절하게 위원 분배를 이룬 안이 당무위에 보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의 비대위가 주요 계파들의 수장으로 구성된 것처럼 조강특위도 계파별 인사가 한 명씩 참여하는 방식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조강특위는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총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다. 당내 관계자는 "조강특위 위원 선정이 공론화되지 않고 비대위를 중심으로 말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여러가지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조강특위도 친노 인사가 주축을 이룬다면 상당한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 구성된 것처럼 조강특위도 계파별 인사가 한 명씩 참여하는 방식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조강특위는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총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다.

당내 관계자는 "조강특위 위원 선정이 공론화되지 않고 비대위를 중심으로 말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여러가지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조강특위도 친노 인사가 주축을 이룬다면 상당한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정치인 출판기념회 與, 전면 금지 추진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일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혁신위는 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에 의견을 모았다. 이는 책의 정가 판매만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의견보다 한층 강도높은 제재다. 혁신위는 야당과 협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을 조속 추진할 방침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당 차원에서 당헌당규를 개정,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박지정기자 jkpark@

## 강기정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과징금 경감 부당”

### 국감 브리핑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최초 1조7000억원에서 4355억원대로 줄었고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2900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호남고속철도 담합 제재 의결서 자료에 따르면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로 28개 건설사에 모두 1조 7589억원의 과징금이 산정됐다.

이 기본 과징금 산정액은 지난 7월 공정위가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하면서 4355억원으로 줄었고 최근 자신신고에 따른 감면제도(리니언스) 혜택까지 반영돼 과징금 액수는 애초의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박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부과하면서 조사과정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업에 대해 20% 감경조치를 취했고 상당수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과징금을 면제해줬다. 규정에도 없는 재량 감경도 더해져 단독계약이 아니라거나 경기악화로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됐다는 이유로 감경 사유가 됐다.

강 의원은 "담합을 통해 공사를 수주하고 부당이익을 취했다면 과징금을 통해 이를 회수하는 것이 당연한데 과도한 과징금 감경으로 불가능해졌다"며 "의형적으로 보면 사상 최대의 과징금 부과지만 실제로는 사상 최대로 건설사를 살려준 제재"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에 대한 과징금을 /박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예쁜사람은 많다 돈 많은 사람도 많다 정신이 맑고 마음이 예쁜 사람도 많았으면 좋겠다.**

나눔과 배려가 세상을 바꾸듯이

신협이 예금과 대출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비과세 예금 3,000만원 (1인당 예금보장 5,000만원)
- 대출최고한도 28억원 (최저금리 3.8%)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금호지점/중앙지점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가격할인 행사**

2개월+1개월 행사 **총3개월 25만원**  
4개월+2개월 행사 **총6개월 45만원**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03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

**제5회 자동이체 행운이벤트**

이사항 안동경 전무 하현준

**5,000만원 경품 1,479분께 드리는 특급 이벤트!!**

- 신청기간 · 2014년 10월 24일까지
- 응모대상 · 행사기간내 자동이체 3건이상 신청, 기존 유지 고객
- 응모권교부조건 · 자동이체 3건당 1매 교부

경품 추첨일 2014년 10월 26일(일) 오후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1등	50인치 벽걸이 TV	3명
2등	드럼세탁기	3명
3등	제습기	9명
4등	쿠쿠압력밥솥	12명
5등	자전거	12명
6등	생활용품세트(대)	90명
7등	생활용품세트(중)	150명
8등	아차상	1200명

※ 동급 사은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등까지는 참석 본인에 한하여 경품지급합니다. ※ 중복당첨시 상위 상품으로만 지급합니다. ※ 경품행사는 응모한 회원에 한하여 추첨합니다.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KBC광주방송국 및 가동교병원 아래 대성초교거리